

지역 소식통

부안군,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집중 홍보

부안군은 오는 24일부터 확대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와 관련하여 집단급식소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업소 1,74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새로 추가되는 품목은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1회용 합성수지 빨대(짚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되며, 슈퍼마켓 및 편의점 등 도매판매 매장 내 1회용 봉투 및 소포백이 사용 금지된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며, 축구장 등 체육시설 내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오는 11월 24일부터 확대 강화되지만 1년 동안은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행동변화 유도형 캠페인(포스터)을 전개한다. 주요내용은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공모 선정

고창군이 전북도의 '2023년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14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민선 8기 고창군의 중요 농촌도시 만들기를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은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을 대상으로 농산물유통센터(APC)의 기능을 보완하는 사업과 소규모 상품화 시설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4개 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 상품화시설인 수박 선별장(330㎡) 1개소, 수박·양파·두릅 선별기 6조, 저온저장고 개보수 등의 신규 및 보완하는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수박·양파 등의 작물 수확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농가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

고창군, 선정위 1차 회의 열고 수박·멜론 등 31종

고창군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지역 대표성과 유통 안정성, 기부자 선택다양성 등을 고려해 농·수·축산물 12종, 가공품 11종, 관광·서비스 7종, 유가증권 1종, 총 31종의 답례품을 선정했다.

품목으로는 고창군 7대 전략직물인 수박, 멜론, 인삼 등을 포함한 농·수·축산물 12종 대표 특산물, 복분자주, 풍천장어, 식초 등 가공품 11종, 힐링카운터속박권, 석정온천이용권, 헤리책마을체험 고창사랑상품권 등이 선정됐다.

인재와 우수 기업 매칭... '정읍시 취업박람회' 열린다

24일 정읍체육관서... SK넥셀리스·다원시스·하림 등16개 우수 기업 참여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청년 자립 지원 등 시민 일자리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오는 24일 정읍체육관(실내체육관)에서 '2022 정읍시 취업박람회'를 열고, 지역 내 우량기업과 구직자들 간 대면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지역 구직자들에게 다량한 취업 정보와 우량기업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에는 우수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람회에는 SK넥셀리스와 다원시스, 하림 정읍공장, 대우전자부품 등 지역 내 16개의 우량기업이 참여

해 채용 설명회와 기업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지원센터, 시니어클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취업 관련 기관이 참여해 취업·창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과 계층별 고용정책 등에 대해 홍보를 진행한다.

이들 기관은 구직자들에게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직전략 소개와 취업에 성공하는 면접 꿀팁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한 취업 성과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취업 설명회와 MBTI 직업적성 검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밝은 직장문화 조성 위한 4대 폭력 예방 교육 가져

정읍시가 지난 18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밝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가졌다.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 조치)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과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을 예방하고 평등한 조직 문화 확산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위계적인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는 밝은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 예방 교육 위탁 강사로 활동 중인 마음채심리상담센터 홍미선 센터장이 강사로 나섰다.

홍미선 강사는 간부 공무원의 의지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조직 내 성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규범과 간부 공무원으로서 역할과 실천 등의 내용을 안내했다.

/정읍=김대환기자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고향사랑음식시스템에 답례품을 오는 12월 중 등록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창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개인이 군에 일정액(연간 500만 원 이내)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최고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활용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3년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될뿐만 아니라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선정된 '유네스코세계유산도시초대권'은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답례품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군은 선정된 답례품에 대한 공모를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고향사랑음식시스템에 답례품을 오는 12월 중 등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이력서용 사진과 메이크업, 퍼스널컬러 매칭 등 구직자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학수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취업박람회인 만큼 지역 내 구직자들과 기업체의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직 희망자들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업박람회 관련 문의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취업증개센터(063-531-9447)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하남선)는 전북대학교 캠퍼스에서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마을만들기 전문가 양성과정인 '지역계획 퍼실리테이터 자격과정' 수료식을 열고, 모든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성료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마을만들기 전문가 수료식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하남선)는 전북대학교 캠퍼스에서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마을만들기 전문가 양성과정인 '지역계획 퍼실리테이터 자격과정' 수료식을 열고, 모든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지역계획 퍼실리테이터 자격과정'은 전문적 소통 관리자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통하여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역량 있는 전문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10월 28일 ~ 11월 16일까지 총 4회 기본과정(24시간), 심화과정(8시간)으로 구성되어 전문적 기법 교육과 실습 등 실제 마을 만들기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 날 수료식에서 지역활동가(부안

사회복지관, 부안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마을사무장 및 리더 등) 2명 수료증 전달과 함께 그동안 배움과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남선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활력 증진 기여 및 주민들의 소통과 협력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의 역량을 갖춘 퍼실리테이터 현장 활동가로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생생마을 플러스사업,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사업,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등 활력증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김장철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나서

정읍시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별 점검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철을 맞아 판매가 급증하는 천일염과 젓갈류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하며,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원산지표시 단속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 홍보와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